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41. 첫째, 둘째 나팔

2013. 10. 13.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곱 나팔에 대한 서론적 말씀과 첫째 나팔에 대한 예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는 중에 시간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첫째 나팔에 대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8:6,7]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7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삼분의 일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삼분의 일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이 권고받는 날을 모른다고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끝을 내지 못했습니다. 권고 받는 날이 무슨 뜻입니까?

답: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본분을 다 하기를 고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문화적 압력에 굴복하였습니다. 즉 주위의 강대국들의 정치적 문화적 성취를 보고 그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민이 강대국을 의지할 때에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강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우상숭배를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러나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용서하시고 일으키시고 사랑하십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 살 때에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해방될 것과 구주 메시야가 오실 때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70이레 기간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단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70이레 가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을 위한 권고 받는 날입니다. 이 기간이 민족적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마지막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것이 평화에 관한 일과 권고 받는 기간인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후에 그 성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고 권고 받는 날을 알지 못하는 성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원수가 이르러 토성을 쌓고 공격할 것을 말씀하셨지요.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다시 읽어봅시다.

[눅19:43,44]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과연 기원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도록 멸망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나팔의 진상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사단 편에 섰다가 망한 것입니다. 저는 3분의 1이라는 말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2. 그렇게나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살았습니까?

답: 그때가 기원 70년이니까 예루살렘 상주인구가 그렇게 많았다고 볼 수 없지요. 그런데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당시 초막절을 당해서 흠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군의 공격으로 다 죽은 것이지요.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예루살렘성내를 남북으로 동서로 맨발로 다니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북쪽에서 한 소리가 동쪽에서 한 소리가 사방에서 한 소리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소리가” 이런 말을 외쳤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구름 위로 병거들이 달리는 형상 군인들이 행군하는 형상 그런 것이 움직이는 소리 등도 들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 예루살렘에 경고하는 징조들이었지요. 그런데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상한 현상이라는 생각 외에 권고 받는 날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몰랐습니다. 절기에 방문 온 사람들까지 그렇게 살육을 당한 것이지요.

3. 그러면 피난한 사람들은 없었나요?

답: 그런 사실들을 유의했던 사람들은 기회를 타서 피난했겠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다 피트먼 계곡으로 피난을 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예수님의 경고가 무엇인데요?) 예수께서 말세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고 했지요. “눅21:20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일에 대하여 살폈지요. 그런데 과연 66년에 로마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고가 좀 이상하지요? 포위되었을 때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포위된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도망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포위한지 3년 만에 포위를 풀고 로마군이 물러갔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자하는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가 하면서, 무슨 일이 있는가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던 장소, 즉 회당으로 가 봤지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고 서로 물었겠지요. 대답이 같았습니다. 어디선가 나가자 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무슨 일인가 하고 교회당으로 나와 봤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고 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가까운 성문으로 나가보자고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장정 20명이 밀어야 열리는 그 성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무엇을 가지러 갈 여유가 없었지요. 집에서 나온 그대로 성을 빠져나와서 피트먼 골짜기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24:16,17]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18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씀대로 이 사람들은 집으로 물건을 가지러 갈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만일 그랬다가 성문이 닫히면 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지요.

4. 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억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멸망한 사람이 없었군요. 오늘날도 예수님의 말씀에 유의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하겠습니다.

답: 당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여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 되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기억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음식 먹는 것과 같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지요. 끼니를 때를 맞춰 잘 챙겨먹어야 건강하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목사님이나 저는 목사이니까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에 있지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애청자들께서도 베뢰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유의하면서 생활할 때에 환난의 날이 닥쳐도 말씀으로 피난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이제 둘째 나팔로 가도 되지 않을까요?

답: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권고 받는 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첫째 나팔의 예언이 곧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임을 말하는 중에 그 멸망이 권고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찾아 이야기 한 것입니다.

6. 예, 감사합니다. 첫째 나팔에 대한 예언적 사건이 에베소 교회 시대, 첫째 인 시대와 같은 시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인데, 곧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임을 밝혀주셨습니다. 둘째 나팔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세력에 대한 징치하는 사건이겠지요?

답: 그렇지요. 일곱 인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반대하고 방해하고 핍박한 정치적 세력들을 징치하시는 사건을 표상적으로 예언한 것이지요. 둘째 나팔을 한 번 찾아봅시다.

[계8:8,9]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9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어지더라.

나팔 예언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 복음 사업을 핍박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으로 이해할 때에 첫째 나팔이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예언한 것이라고 공부했지요. 둘째 나팔에 대하여서도 저는 역사주의적 입장에서 말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나팔에도 첫째 나팔에서처럼 일곱 개의 상징적 낱말들이 나옵니다. 불, 큰 산, 바다, 피, 생명 가진 피조물, 배들, 3분의 1이 그것입니다. 첫째 나팔에서 이런 표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불은 전쟁의 방화를, 피는 유혈 사건, 3분의 1은 사단에게 속한 세력, 그런데 첫째 나팔과 다른 표현들이 큰 산, 바다, 생명가진 피조물, 배들입니다. 산도 성경에서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렘51:24,25,42]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25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퍼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42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많은 파도가 그것에 덮혔도다.

[사13:4]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남이여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이 말씀에서 산은 나라를 표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산을 나라로 표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불붙는 큰 산은 전쟁으로 큰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이해됩니다. 바다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입니다.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설명했지요.

[계17:15]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계17장의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계17:1) 많은 물은 바다를 뜻하는 다른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방해하고 핍박한 한 큰 나라가 많은 민족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생명가진 피조물은 그 나라에 사는 생물들이지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배는 고대 사회에서 무역으로 치부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겔27:25,33] 다시스의 배는 떼를 지어 네 물화를 실었음이여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도다./ 33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음이여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열왕을 풍부케 하였도다.

[계18:17~19]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19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큰 나라가 망할 때에 그 나라의 경제적 사정도 함께 망하는 것이지요.

7. 역사적으로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어느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복음 사업을 방해해서 이런 징치를 당하는 것인지 역사에서 그 대상을 분명히 말씀해주셔야지요.

답: 그러니까 첫째는 유대인들과 그 나라, 곧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나라가 시작하는 교회를 악착같이 핍박하고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의 제자들을 엄청 핍박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큰 나라는 로마제국 아닙니까. 그러므로 둘째 나팔은 로마제국의 붕괴에 대한 예언입니다. 로마제국은 정말로 큰 산이지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378년부터 476년 사이에 멸망했습니다. 정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망했으니 바다, 곧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 의해 망한 것입니다. 역사에서 첫째 나팔은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것인데 둘째 나팔이 수백 년 후에 서로마제국의 붕괴를 예언한 것이라고 하면 역사적 연대의 간격이 너무 떨어진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복음 사업을 핍박한 세력의 징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역사적으로 그런 세력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연속적인 사건이 될 수 없는 것이 옳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8. 다른 해석을 하는 학자들은 없습니까?

답: 있지요.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을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이나 재림 하실 무렵에 이 세상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것은 계시록을 초대교회 시대부터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1~3장은 요한 당시에 있었던 사실을 말한 것이고 4장 이후는 재림 직전에 있을 말세 사건이라고 이해하는 미래주의적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이해하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주의적 이해와 혼용할 수 있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영적 해석으로는 불붙는 큰 산은 영적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에는 바벨론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다. 계시록 자체에 바벨론이 몰락하는 것을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계18:21]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예레미야도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바다에 가라앉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렘51:63,64]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64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륵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패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마치니라.

계시록에서 큰 산이 영적 바벨론을 나타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벨론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연합체로서 정치와 종교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종말에 큰 정치적 종교적 세력입니다. 그것은 거짓 삼위일체를 형성하여 이 세상에서 진짜 하나님인체 하면서 인류를 미혹하는 세력입니다. 이 세력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몰락하고 멸망하는 것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은 성경적으로 틀린 해석이 아니지요. 그러나 계시록의 예언이 교회의 역사적 진행과 발전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것이라는 시각으로 이해할 때에 이런 영적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역사의 종말에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국에 영적 바벨론에 대하여서는 계시록 13장에 잘 예언되었고 그것의 붕괴

에 대하여서는 계시록 17장과 18장에 구체적으로 예언되었기 때문에 둘째 나팔은 서로마제국의 붕괴와 몰락을 예언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역사주의적 견해를 견지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 나팔에 대한 예언은 쉽지 않네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답: 당연하지요. 제가 미래주의적 해석이나 영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것과 같지요. 그러나 다니엘서나 계시록의 예언이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까. 영적 상태에 대한 것은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역사적 사건을 예언한 내용에서 역사적 진행이나 사건을 제쳐놓고 영적인 해석을 우선하는 것은 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사건을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영적 사실을 적용하여 격려하고 일상의 신앙자세를 고양시키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우선시하고 역사적 해석을 부속적으로 이해한다면 바른 견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계시록에 예언적 언어가 너무 상징적이기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대답을 주관하시고 제가 올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도 기억나면 이 시간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애청자들께서도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계시록이 거의 동일한 역사적 기간에 일어나는 사건을 4각 기둥의 네 면으로 표현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저의 설명을 수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10. 예,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명을 수용하고 더 연구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청자들께서도 말씀을 들으시고 직접 성경을 펴시고 이것이 그리 한가 일일이 상고하셔서 스스로 확인하시고 확정하고 확신하시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 예, 저도 애청자들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면 스스로 말씀의 진리에 신앙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우리도 더 깊이 연구해야 하겠지요.

11. 목사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지요.

기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시록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가르쳐주신 것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애청자들과 우리가 다 성령의 감동과 지도로 결길로 가지 않게 지켜주시고 바르게 깨달음으로 더욱 바른 믿음으로 생활하는데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경적 신앙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